



홍경대표 : 4 가지 조치로 변강 변영의 새 고지 구축할 것



전국인대 대표이며 연변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은 김립성대표단이 개최한 대표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래에 착안하여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공동체이익을 확고히 하는 것을 주선으로 견지함으로써 흥변부민 및 변방 안정과 강화의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질 것이다.”

홍경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 산업변영의 핵심축을 충분히 활용하고 둘째로, 인기 집결의 기본틀을 안정시키며 셋째로, 살기 좋은 향촌이라는 새로운 고지를 구축하고 넷째로, 문화 진흥의 주선틀을 선양함으로써 각 민족 대중이 올바른 국가관, 력사관, 민족관, 종교관을 세우도록 인도하고 문화를 뉴대로, 국경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아 문화 진흥이 흥변부민 및 변방 안정과 강화에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주입하도록 할 것이다.

/인민넷 - 조문판

최해양위원 : 서부지역 교육에 더 큰 지원을 해야



올해 전국 랑회에서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민주동맹 귀주성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귀주민족대학 부교장인 최해양은 서부지역 도시(城镇) 기초교육을 주목했다.

최해양은 조사연구와 방문을 하면서 ‘서부지역 도시화 과정 가속화’와 ‘출생 인구의 변동’이 겹치면서 기초교육 자원이 ‘도시 과밀, 농촌 여유’ 특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자원이 이동할 수 없고 도시와 농촌, 구역간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도시 학교에는 ‘큰 학교정원’, ‘큰 학급정원’ 현상이 존재한다.”

“서부대개발 전략이 심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서부지역 기초교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력사적인 부채가 많고 기반이 약하여 그 발전 수준이 여전히 전국 평균 수 준보다 낮다.”

이에 대해 최해양위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부지역을 지도하여 ‘도시 기초교육 자원 배치 전문계획’을 제정하고 항목 계획과 인구류동 추세가 서로 부합되도록 확보하여 자원의 정

확한 투입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부 도시 기초교육 확장’ 특별 항목을 별도로 제정하여 학위 부족이 두드러진 지역의 도시 학교 신축, 개축, 확장을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다구역 교육자원 조정 시범을 지지하고 ‘집단지행 학교 운영’, ‘도시와 농촌 결연’ 등 모식을 통해 농촌의 여유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최해양은 또 도시에서 긴급하게 부족한 과목 교원에 대해 ‘정향 채용, 대우 편향’ 정책을 실행하고 성간 교육 지원 격려 기제를 구축하며 ‘국가 양성계획’을 기반으로 서부 교원의 양성 보급 면을 확대하고 도시 학교의 골간교원 정보화 교수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켜 동부지역과의 ‘소프트 파워’ 차이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인민넷 - 조문판

한영철대표 : 문화관광 발전으로 변경의 변영발전 촉진할 것



성대표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하고 계획 보고와 초안, 예산 보고와 초안을 검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을 언론매체에 개방했다.

회의에서 전국인대 대표이며 장백조선족자치현 현장인 한영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백현은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현이다. 장백현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현재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가 세곳, 성급중점문화보호단위가 세곳 있다. 올해 들어 장백현은 력사문화유적의 보호, 전승, 개발 및 활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문화로 관광을 부각시키고 관광으로 문화를 과시하면서 선후로 여러개의 관광지를

형성했다. 장백현은 현재 3A 급 이상의 관광지 8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경내 260여키로메터의 G331 국도는 가장 아름다운 국경도로로 연선의 38개 행정촌의 산업 특색을 결합시켜 민박관광, 과일과 채소 따기, 캠핑카, 향촌민박 등 물입식, 다양한 관광 로선 상품을 만들어 G331 연선의 풍경 명소와 자연마을을 하나로 이어놓았다. 앞으로 장백현은 농업, 문화, 관광의 긴밀한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경관, 문화유적, 민족풍정을 일체화한 장백산 아래 압록강반의 관광산업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민넷 - 조문판

김현위원 : ‘백산흑수’의 빙설 글로벌 브랜드 효과 향상시켜야



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료녕해제승기계 유한회사 리사장인 김현은 동계아시안게임의 추진으로 동북은 빙설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서의 빙설경제가 이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요소, 전 사슬, 전 분야에서 ‘빙설+’의 후반부 작업을 잘 수행하여 ‘백산흑수’의 글로벌 브랜드 효과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빙설관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고 발표하며 자금 투입을 강화하고 국제 문화관광 브랜드의 일체화 구축을 강화하며 정규적 통로의 다어종 동북 문화관광 선전을 견지하고 중시

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빙설산업은 떠오르는 산업으로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은 정책적 지원, 기술혁신 및 소비 업그레이드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빙설산업이 미래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둥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은 “미래에 중국이 빙설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깊이있게 탐구하여 글로벌산업 발전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더욱 변형하는 글로벌 경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민넷 - 조문판

함순녀대표 : 우수한 문예작품으로 민족단결이야기 엮어야



사명을 맡고 있다.

창작내용 면에서 우리는 각 민족간의 단결과 상호 협력, 공동발전의 진실한 이야기와 전형적 사례를 깊이있게 발굴해야 한다. 레를 들면 연변 지역에서는 조선족과 기타 여러 민족들이 오래동안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생산과 생활 속에서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창작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술적인 형태로 무대에 올려 관객들이 민족단결의 힘을 더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술표현형식 면에서 우리는 조선족의 장고춤, 상모춤 등 독특한 무용형식과 같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예술 정수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융합, 혁신해야 한다. 레를 들면 무용극의 구성에서 현대무용의 일부 표현 기법을 참조하여 무용을 더욱 긴장감과 표현력이 있도록 만들어 더 많은 연령층과 문화 배경의 관객들을 흡인해야 한다. 민족의 뿌리를 깊이 파헤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족의 전통 풍습, 민간전설 등 여러 방면에서 령감을 찾고 이러한 요소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 작품이 더욱 민족적 특색과 문화적 깊이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민족 전통을 현대생

활에 융합시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의 계승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는바 현대사회의 발전 및 사람들의 미적 요구와 결부하여 전통 예술을 혁신하고 전환시켜야 한다. 레를 들면 무용극의 음악 창작에서 현대 음악 요소를 결합하여 전통음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원화를 강조하는 것 역시 관건이다. 연변지역은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곳으로 창작 과정에서 여러 민족의 특색과 풍모를 보여주고 각 민족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무용, 음악, 의상 등 다양한 예술 요소를 통해 여러 민족의 다양성과 독특한 매력을 선보여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한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립성의 문예점선은 각 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레를 들면 다양한 문화자원의 발굴, ‘길’자 작품의 새로운 발전, 지방 희곡 극종의 변형 등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예인군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바 우수한 문예작품을 통해 민족단결의 궁정에너지 전달하고 민족단결의 꽃이 번방 지역에서 더욱 찬란하게 피어나도록 함으로써 상호 조력하고 발전하는 큰 과제를 잘 수행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자신의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인민넷 - 조문판

권충광위원 : 교육에 AI 에너지 부여해야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기화자산평가유한회사 리사장인 권충광은 이렇게 해야만 농촌의 아이들도 AI 교육이 가져다주는 보너스를 누릴 수 있고 도시와 농촌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충광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교육 조건과 환경의 차이는 아직도 매우 두드러지다면서 농촌지역 아이들은 새로운 사물을 접촉하는 방면에서 보다 많은 국한성에 직면했기에 정부와 사회각계의 조력이 시급하다. 바로 효과적인 경로를 탐색하여 기초건설의 근본적인 고리, 특히 시설 개선과 교원대오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교육에 에너지를 부여하면 농촌 교육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농촌의 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고 인터넷 건설, 하드웨어 설비시설과 교원대오 건설 등 방면의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권충광은 또 중소학생들로 하여금 인공지능은 만능열쇠가 아니라 단지 학습을 돕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공지능만으로 한번에 일을 끝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자률학습과 문제 해결 연습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해서 안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레를 들어 과거 학생들은 수학문제 해결 시 평면기하나 입체기하나 전부 직접 보조선을 긋고 공식을 리용하며 반복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의 답을 찾았다. 오늘날 AI는 인준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자주적 혁신 능력을 자극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오늘날의 도전이다. 그는 관련 분야는 AI가 교육에 에너지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혁신 능력과 자주적 학습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AI 경로 의존의 형성을 방지하고 사고력, 학습력, 창조력, 혁신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민넷 - 조문판



며칠 동안 김립성 전국인대 녀성대표들은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실속있는 말을 하며 고품질 발전을 위해 건의와 책략을 내놓음으로써 새시대 녀성들의 책임을 구현했다.

/ 김립일보

3월 9일 오전, 김립성 전국인대 대표들은 대표법 개정 결정 초안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 김립일보

